



언론을 요즘에는 미디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의 corporate communication팀의 팀장입니다. 28년째 사회생활을 하는데 내 직업은 한 마디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론은 커뮤니케이션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상시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늘 안고 있습니다. 저는 앵커로 만 4년을 일 했는데, 제가 직업적으로 하는 이 일은 세상적으로는 명예로운 일이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전해지는 뉴스 25쪽지 중에 확신이 없는 것이 많을 때는 10쪽지까지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 사실에 가까운 것인가를 늘 고민하곤 했습니다. 뉴스란 재구성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는 뉴스가 제대로 재구성된 리얼리티인가하는 것을 매일 확신하지 못한 채 뉴스를 내보낼 때 저는 바늘방석에 앉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직업에서 벗어난 현재라고 해서 기자라는 부담이 없어지는 것도 아님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4기 개강특강

전직 언론인의 체험적 언론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었드러질 것이라 너희중에서 이십 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0:26~30-

38_worldview



니다. 그래도 그 때보다는 흥분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책을 보다가 고대부터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는데, 이 서문에 보면 나는 나에게만 일어난 이야기만 쓰지 않고, ... 가능한 사건 현장에도 가 보았다. 그러나 진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목격자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 불완전한 기억에 의지하여, 편파적인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의 고민이나, 2500년 전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고민은 같았던 것입니다. 문명의 발전 정도는 정말 크지만, 인간의 인지구조는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역사의 대 사상가들이 나오는 시기인 B.C 2C 춘추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나라 환공이 누각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의 굴대를 끼우는 윤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윤편이 글을 읽고 있는 환공에게 전하는 무엇을 읽고 있는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환공이 옛 성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다네. 그는 예전에 죽은 사람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편이 전하는 그러면 그 사람의 껍데기를 읽고 있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윤편의 말에 화가 난 환공이 그 말의 뜻을 묻자 윤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바퀴를 끼운 것이 수 십년입니다만 조금만 느슨해도 바퀴가 빠지고, 조금만 뺄뺄해도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대로 끼우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손으로 느껴서 알 뿐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가르쳐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성인의 말씀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책이 그것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옛사람의 껍데기일 수밖에요. 이 말에 제나라 환공은 그 말에 동의하여 윤편을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윤편이 수레바퀴 깎는 기술을 말로 다 설명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언어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서양의 투키디데스 이야기와 동양의 윤편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서양 모두가 인정한 것입니다. 20세기에 와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당시 모든 언론인들은 모스크바에 상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볼셰비키 혁명에 대한 예고 기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짜르체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인다는 뉴스를 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월터 리프만은 그 당시 미국 언론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정확한 실상을 전하는데 실패한 이유에 대해 무엇이 실제인지, 무엇이 일어난 것인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투키디데스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목격자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제 미국 특파원 역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기자들이 보았던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 능력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언론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언론이 보여주는 세상은 재구성된 현실입니다. 재구성하는 과정에는 언론인의 의지, 판단, 가치관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구성된 결과물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 모양입니다 라고 던질 때 이것이 곧 규정이 됩니다. 즉 언론의 힘은 상대를 규정하는 힘입니다. 결국 이것은 또 다른 권력이 됩니다. 우리는 언론인으로서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은 사실만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 듣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실을 수집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언론 간에 갈등이 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보는 세상이야. 라고 서로 주장하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칼의 노래〉를 쓴 소설가 김훈은 한국일보 문화부 기자 출신인 후배 기자들이 소설가와 기자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자로 생활할 때 하지 못한 원한을 지금 풀고 있어. 기자는 6화 원칙에 맞게 써야하는데, 지금 너무 편해. 기자는 사실과 그것을 확인하는 것의 존엄함을 알아야 해. 지금 신문을 봐.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 의견을 사실인 것 같이 써. 미쳤지. 소



MEDIA ACADEMY

설을 쓰니 너무 편해.

김훈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설 <남한 산성>에서 첫 문장을 “꽃은 피었다 로 할지 꽃이 피었다 라고 할지로 일주일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글을 쓰면서 고민하던 김훈인데 왜 소설 쓰는 것을 기자 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편하다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여대 석좌교수인 문학평론가 김우창은 언론계의 분열과 당파성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이 성향에 따른 분열을 유도하기 보다는 사실 보도에 만족해야 하며, 중립적으로 사실을 밝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는 검증입니다. 여러 시각에서 보고 검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직업윤리입니다. 이러한 검증을 거쳐도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무지기수인데, 하물며 언론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뒤죽박죽으로 마구 쏟아내기만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에만 주력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언론이 각자 어떤 주의와 주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의 철저한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초에는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언론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서로 공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는 의식으로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너와 틀려가 아니라 달라입니다. 우리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알게 된 보스턴의 한 기자는 한국 사람들이 wrong 과 different 를 혼용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했습니다. 한국인은 오랜 세월 좁은 국토 안에 동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남과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른 것을 수용하는데 매우 인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성이 커뮤니케이션의 한계와 함께 섞이면 갈등은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언론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

한 본질적인 고민을 안고 시작해야 합니다.

역사학과 언론은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중국 수당 5호 16국 전문가이며 세계적인 대가인 박한재 교수의 <역사 기행>이라는 책에는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필봉보다 더 무서운 살상무기는 없다. 필자는 이것을 문자의 폭력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처럼 언론은 규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법적인 것은 아니라도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동네 오음진 신부는 파렴치범으로 몰렸다가 무죄 판결 받았지만 이 재판을 받으면서 사기꾼, 비리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5년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오음진 신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알았습니다. 고대에는 사형기가 있어 인간을 처단했으나, 현대는 마스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판단하는 직업의 두려움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나중에 무엇을 하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 기사가 되고 싶다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자고 했습니다. 판단을 직업으로 하는 일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직업을 흔히 소명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 직업으로서의 언론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있었습니다. 언론인과 재판관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규정한다는 면에서 비슷합니다. 성경이 재판관에게 주는 교훈은 언론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17절에 내가 그 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낮을 두려워 말 것이며(언론에 휘둘리지 말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기도하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습니다.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또한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



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사작성의 기초〉를 저술한 이화여대 이재경 교수가 원고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기자가 되는 자질에 대해 기자는 정의감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의감을 없애든지 아니면 균형감각을 함께 넣으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감이 균형감각으로 바로 잡히지 않으면 폭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저항시인인 김지하는 정의로운 폭력은 사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의감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에 맞설 때 힘이 없어서 정의감을 가지고 화염병을 던지는데, 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감은 균형감각이 따라오지 않으면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 다음 덕목은 겸중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윤리이자 기본입니다. 이 검증 과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것은 속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독교적 언론관의 결론은 겸손과 정직입니다. 너무 싱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 언론인을 포함하여 모든 언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대결장이 아닙니다. 정의감에 함부로 휘둘리기 보다는, 언론인의 소명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요나는 연민보다는 열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든 세상을 한번 시원하게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남을 향해 날카로운 칼을 들이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단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11장 1~2절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권력의 속성은 나의 힘을 상대방에게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가장 본질적 속성은 교만입니다. 내가 너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권력이고 곧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고 했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교만하기 쉬워서 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언론인은 특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겸손은 최고의 덕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적인 진실을 모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저에게